

제1부 강건왕 아우구스투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2세) Augustus the Strong (King Augustus II)

루이 드 실베스트르 공방 추정
드레스덴, 1720~1730년경
캔버스에 유화
드레스덴박물관연합, SKD/LN 207/2013

Attributed to workshop of Louis de Silvestre
Dresden, c. 1720-1730
Oil on canvas
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 SKD/LN 207/2013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로 불리는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투스 2세(Friedrich Augustus II, 1670~1733)의 초상화입니다. 초상화 속의 아우구스투스는 폴란드 국왕임을 대변하는 다양한 의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깨에 걸친 망토는 대관식 때 착용했던 예복으로 국왕으로서의 지위와 품격을 드러냅니다. 푸른색의 망토 위에는 1705년 자신이 폴란드 국왕으로서 제정한 흰독수리 훈장을 달았고, 그 아래로는 폴란드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신성로마제국 황제로부터 받은 황금양모기사단 훈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대북방 전쟁에 참여한 작센이 스웨덴에 패하면서, 아우구스투스는 1706년 폴란드 국왕의 자리를 일시적으로 잃었습니다. 그러나 작센이 지원한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덕분에 1709년 그는 폴란드 국왕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초상화는 아우구스투스가 폴란드 왕위를 회복한 뒤,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잘 보여줍니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군복

Coat (Justaucorps) of Augustus the Strong

1700년경

가죽, 금실 자수

무기박물관, i. 29

c. 1700

Leather, gold embroidery

Rüstkammer, i. 29

옷감 전체에 황금 자수를 놓은 이 화려한 군복은 아우구스투스가 전쟁에서 패해 폴란드 왕위를 잃은 뒤 복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702년 작센은 대북방전쟁 (1700~1721) 중 스웨덴과의 전투에서 패했고, 아우구스투스는 폴란드 왕위를 잃게 됩니다. 이 때 그는 후퇴하면서 입고 있던 군복과 마차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폴란드 왕위를 되찾으며 전쟁에서 빼앗긴 군복을 다시 손에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군복은 지금의 모습처럼 스웨덴 군인들이 일부를 잘라 나눠 가진 상태였습니다. 1709년 아우구스투스는 복위를 기념하는 축제에서 입을 의례용 군복을 주문하면서, 적군에게 빼앗겼던 바로 이 군복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새롭게 제작된 군복은 잘려진 군복과 함께 현재 무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기병용 검과 매듭 장식 Cavalry Sword and Portepeee of Augustus the Strong

독일, 1733년 이전

철에 부분 도금, 은에 도금, 금과 은 직물, 비단
무기박물관, XIV 3, i 464

Germany, before 1733

Partly gilded iron, gilded silver, gold and silver weave, silk
Rüstkammer, XIV 3, i 464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개인적으로 소지한 기병용 검으로, 기록에 따르면 대례식 군복과 함께 그의 옷장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검에는 왕관이 있는 모노그램 “FAR(Fridericus Augustus Rex)”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작센 선제후로서의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투스”와 폴란드 국왕으로서의 “아우구스투스 2세”를 뜻하는 두 라틴어 명칭을 합성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 모노그램을 그가 알트란슈테트 조약으로 폴란드의 왕위를 내놓아야 했던 1706년부터, 러시아 표트르 1세의 승리로 폴란드 왕으로 복위한 1709년 사이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1711년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사망한 뒤 황제 자리가 잠시 비게 되자, 그는 황제직을 대리하는 ‘제국 고위원수’로서 이 모노그램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생김새를 본 뜬 태양 가면 Sun Mask with the Likeness of Augustus the Strong

요한 멜히오르 딩글링거
드레스덴, 1709년
동에 도금
무기박물관, N 171

Johann Melchior Dinglinger
Dresden, 1709
Gilded copper
Rüstkammer, N 171

이 태양 가면은 1709년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폴란드 왕으로 복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덴마크 국왕 프레데리크 4세를 초청하여 벌인 ‘신들의 행렬’ 행사에서 착용한 것입니다. 밤에 펼쳐진 이 연회는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Louis XIV, 재위 1643~1715)가 태양신 아폴론으로 분장한 ‘밤의 발레’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또한 자신의 생김새를 본 뜬 이 태양 가면을 씌으로써 자신이 아폴론의 화신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태양신의 이미지는 태양왕과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는 절대군주로서의 이미지를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 흉상 Herm of Augustus the Strong

요한 크리스티안 키르히너
드레스덴, 1712~1714년경
테라코타, 대리석
그린볼트박물관, I 40

Johann Christian Kirchner
Dresden, c. 1712-1714
Fired clay, marble
Grünes Gewölbe, I 40

이 흉상에서 아우구스투스는 비늘 갑옷을 차려 입은 로마 황제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얼굴에 드러나는 강건한 인상은 헤라클레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 황제와 헤라클레스의 모습은 이 작은 조각상에 절대군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힘을 불어넣습니다.

부싯돌식 소총과 바퀴식 소총

Two Flintlock Guns and One Wheel-lock Gun

18세기 전반

철, 황동, 금으로 상감, 호두나무, 뿔과 뼈로 상감, 은입사
무기박물관, G 273, G 583, G 1347

1st half of the 18th century

Iron, brass, inlaid with gold, walnut, horn and bone inlays, silver wire inlays
Rüstkammer, G 273, G 583, G 1347

15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유럽에서는 사냥이 귀족들에게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활동이자 특권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사냥에 사용된 각종 도구들도 귀한 재료들을 이용해 화려하게 장식하여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소총들은 총기를 비롯해 스포츠 활동이나 사냥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보관하던 아우구스투스 3세의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총신이 두꺼운 위쪽 두 점은 멧돼지나 사슴 등 몸집이 큰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한 산탄총입니다. 총신을 매우 정밀하게 만들었고 화력이 강했을 뿐 아니라 적중률이 높아 과녁 맞추기 같은 스포츠 활동에도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총신이 길고 얇은 한 점은 몸집이 작은 동물을 잡기 위한 쌍발식 소총입니다. 부식이 잘 되지 않도록 처리한 튼튼한 총신을 갖추고 황금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바퀴식 또는 부싯돌식 사냥용 소총은 당시 선제후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습니다.

석궁, 시위 걸이용 지렛대, 화살 보관함으로 구성된 스포츠용 석궁 세트 Sporting Crossbow Set Consisting of Crossbow, Clamping Lever, and Box for Bolts

게오르크 에셔

드레스덴, 1719년

강철, 흑단, 귀갑, 자개, 철에 도금, 옷칠, 금칠, 가죽

무기박물관, U 13, U 222, U 201

Georg Escher

Dresden, 1719

Steel, ebony, tortoise shell, mother-of-pearl, gilded iron, lacquer,
gold painting, leather

Rüstkammer, U 13, U 222, U 201

이 석궁 세트는 드레스덴 궁정 건축가 마테우스 다니엘 뢰펠만이 강건왕 아우구스 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3세에게 선물로 바친 것입니다. 이 시기 석궁은 과녁 맞추기 같은 스포츠 활동에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석궁의 활대는 단단한 쇠로 만들었고, 흑단목으로 만든 석궁 몸체는 귀갑(龜甲)과 자개로 상감하여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시위를 손으로 당겨 걸기가 무척 힘들었기 때문에 시위 걸이용 지렛대를 이용했습니다. 지렛대의 짧은 다리 부분에는 귀갑과 자개를 이용해 작센 공국의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목재나 황동, 귀갑과 같은 재료로 바깥 면을 상감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상자 안에는, 화살 외에도 과녁 맞추기 활동에 필요한 점수 기록판, 망원경 등의 도구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냥용 검 Hunting Sword

상아 조각 | 발타자르 페르모저 추정
1732년 이전
상아, 황동에 도금, 나무, 가죽
무기박물관, X 366

Ivory carving | attributed to Balthasar Permoser
Before 1732
Ivory, gilded brass, wood, leather
Rüstkammer, X 366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사냥 도구 Set of Hunting Utensils of Augustus the Strong

1730년 이전
철에 부분 도금, 황동, 가죽
무기박물관, X 503

Before 1730
Partly gilded iron, brass, leather
Rüstkammer, X 503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소장했던 사냥용 칼입니다.
오른쪽의 칼은 왕이 사냥으로 잡은 사슴의 마지막 숨을 끊는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상아로 만든 손잡이에는 그리스 신화에서 반인반수(伴人半獸)의 모습을 한 목신(牧神) 판(Pan)을 조각하였습니다.
사냥감을 해체하는 데 사용된 왼쪽 칼의 칼집에는 작센 공국의 문장(紋章)이, 칼날 아래쪽에는 아우구스투스 왕을 의미하는 모노그램 “AR(Augustus Rex)”이 새겨져 있습니다. 칼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악타이온의 이야기가 묘사되었습니다. 사냥 중이던 악타이온에게 목욕하는 모습을 들킨 사냥의 신 아르테미스가 그를 사슴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칼 손잡이에는 사슴이 된 악타이온이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에 물려 죽는 장면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국식 안장 English Saddle

18세기 전반
가죽, 나무, 벨벳, 비단, 린넨
무기박물관, L 607

1st half of the 18th century
Leather, wood, velvet, silk, linen
Rüstkammer, L 607

영국식 사냥용 말채찍 English Riding Crop for the Hunt

터키, 1733년 이전
은선, 가죽, 연옥, 금, 다이아몬드, 등나무 줄기
무기박물관, L 578

Turkey, before 1733
Silver wire, leather, nephrite, gold, diamonds, cane
Rüstkammer, L 578

당시 유럽에서는 말을 타고 사냥개들과 함께 사냥감을 쫓는 영국식 사냥이 널리 퍼졌습니다. 채찍은 연옥으로 만든 손잡이에 아라베스크 무늬를 금으로 상감하는 등 동양적인 요소를 띠고 있어 터키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잡이 끝 둥근 부분에 다이아몬드를 나란히 박아 넣은 것은 당시 유럽인의 취향에 부합되는 요소입니다.

당시 독일에서 유행한 영국식 안장의 형태는 말을 타고 사냥개와 함께 사냥감을 쫓는 영국식 사냥의 독특한 승마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빠른 전진과 구보, 장애물 넘기를 할 때 말을 탄 사람이 쉽게 몸을 앞으로 기울일 수 있고 말을 효과적으로 몰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독일에서 개를 이용한 사냥이 확산되면서 군주들은 이러한 모양의 안장을 애호하였습니다.

타원형의 뚜껑이 있는 잔 Oval Lidded Goblet

에기디우스 로베니크
드레스덴, 1587년
터닝기법으로 세공한 상아, 베르 에글로미제 장식
그린볼트박물관, II 80

Egidius Lobenigk
Dresden, 1587
Turned ivory, verre églomisé decor
Grünes Gewölbe, II 80

연고병 Ointment Jar

야코프 첼러 공방
드레스덴, 1619~1620년경
터닝 기법으로 세공한 상아
그린볼트박물관, II 79

Workshop of Jakob Zeller
Dresden, c. 1619-1620
Turned ivory
Grünes Gewölbe, II 79

물레를 이용해 상아를 돌려 세공하는 ‘터닝 기법’을 활용한 작품입니다. 터닝 기법은 16세기 말 이후 유럽의 궁정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레스덴의 궁정 상아 세공사 에기디우스 로베니크가 만든 <타원형의 뚜껑이 있는 잔>의 뚜껑 안에는 작센 선제후의 문장과 이름을 표현한 아름다운 유리 장식이 있습니다. 잔의 뚜껑과 몸체에 남겨진 작가의 이니셜에서 이 뛰어난 세공품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연고병>도 드레스덴 궁정 소속의 상아 세공사가 제작한 작품입니다. 내부에는 속이 빈 둥근 기둥을 중심으로 작은 홈이 파져 있는 다섯 개의 원반이 겹겹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돌려서 열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보아, 고체 향유와 연고를 담는 용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릇 Bowl

독일, 17세기 전반
터닝 기법으로 세공한 상아
그린볼트박물관, II 287

Germany, 1st half of the 17th century
Turned ivory
Grünes Gewölbe, II 287

바로크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아는 다시금 예술품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신허로가 개척되어 이 귀한 재료를 이전보다 수월하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유럽의 장인들은 다양한 형태와 기법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그릇은 이전 시대에 터닝 기법을 사용한 작품과 달리 금세공품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병들의 전투 장면이 조각된 뚜껑이 있는 맥주잔 Lidded Tankard Depicting a Cavalry Battle

상아 조각 | 요한 미하엘 호르눔, 슈베비슈 할, 1680~1685년경

금세공 장식 | 요한 아이슬러, 뉘른베르크, 1685~1689년경

상아, 은에 도금

그린볼트박물관, II 388

Ivory carving | Johann Michael Hornung, Schwäbisch-Hall, c. 1680-1685

Mount | Johann Eissler, Nuremberg, c. 1685-1689

Ivory, gilded silver

Grünes Gewölbe, II 388

도금된 은으로 만든 잔에 몸체를 상아로 장식한 맥주잔입니다. 잔의 측면에는 유럽과 오스만 제국의 기병들이 들판을 배경으로 전투를 벌이는 모습이 입체적으로 조각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여러 동맹국의 도움으로 오스만 제국을 물리친 1683년의 빈 대전(大戦)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프로디테와 에로스 Statuette of Venus with Amor

발타자르 페르모저 파
드레스덴, 18세기 초
상아, 나무
그린볼트박물관, II 269 bbb

Circle of Balthasar Permoser
Dresden, early 18th century
Ivory, wood
Grünes Gewölbe, II 269 bbb

상아는 고대부터 귀중한 재료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소형 조각상을 만드는 재료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아들 에로스를 표현한 이 작품은 매끄러운 광택을 내는 상아의 특성을 잘 살렸습니다.

데이아네이라를 납치하는 네소스 Nessus and Deianeira

프랑스, 1700년경

청동

그린볼트박물관, IX 85

France, c. 1700

Bronze

Grünes Gewölbe, IX 85

켄타우로스족 네소스는 헤라클레스의 아내 데이아네이라를 납치하려다 헤라클레스의 손에 죽음을 맞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듯 높이 치켜든 네소스의 앞발과, 이에 놀라 한껏 젖혀진 데이아네이라의 몸은 마치 이 신화의 클라이막스를 지켜보는 듯 생생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 조각상을 비롯하여 ‘청동의 방’에 전시할 여러 작품들을 예술품 중개인을 통해 파리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루이 14세의 기마상 Equestrian Statue of Louis XIV

기욤 드 그로프 추정
프랑스, 1708~1714년경
청동, 나무
그린볼트박물관, IX 27

Attributed to Guillaume de Groff
France, c. 1708-1714
Bronze, wood
Grünes Gewölbe, IX 27

말 위에 올라탄 루이 14세는 바로크 양식의 가발을 쓰고 고대 로마 황제를 연상시키는 복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선 장군과도 같은 당당한 모습은 바로크 시대의 왕을 로마의 황제에 투영하려는 것입니다. 예술품을 활용하여 군주의 절대적 권위를 효과적으로 내보인 루이 14세는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간절히 동경한 대상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 작품과 같은 자세를 취한 자신의 기마상을 신시가지 한가운데에 설치하여 강력한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이하고자 했습니다.

에우로페와 황소 Europa and the Bull

프랑스, 17세기
청동, 나무
그린볼트박물관, IX 45

France, 17th century
Bronze, wood
Grünes Gewölbe, IX 45

아우구스투스가 구입한 청동상 중에는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한 작품이 많았습니다. 이 조각상도 제우스의 유명한 신화를 묘사했습니다. 제우스는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페의 미모에 반해 새하얀 황소로 변신하여 접근한 뒤, 그녀를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바람결에 날리는 옷자락과 황소의 온순한 모습은 극적이지는 않지만, 신화 속 두 주인공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에우로페의 오른손에는 꽃다발이 쥐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의 알레고리 Allegory of Time

잔 로렌초 베르니니 파
로마, 1650~1660년경
청동
그린볼트박물관, IX 49

Circle of Gian Lorenzo Bernini
Rome, c. 1650-1660
Bronze
Grünes Gewölbe, IX 49

제우스의 아버지이자,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는 바로크 예술에서 자주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흔히 날개가 있는 늙은 남성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크로노스를 상징하는 물건 가운데 하나인 낫이 손에 쥐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체 위에서 중심을 잡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자연스러운 옷주름과 근육의 표현이 뛰어납니다.

흙의 알레고리와 물의 알레고리 Allegory of Earth and Allegory of Water

앙투안 쿠와즈보 파
프랑스, 1726년 이전
청동
그린볼트박물관, IX 104, IX 105

Circle of Antoine Coysevox
France, before 1726
Bronze
Grünes Gewölbe, IX 104, IX 105

우주적 가치를 형상화한 알레고리는 그리스 신화와 더불어 ‘청동의 방’에 전시된 작품들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특히 고대의 네 가지 원소, 물, 불, 공기, 흙을 의인화한 조각은 왕이 신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존재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로, 바로크 궁정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성벽 모양의 왕관을 쓰고 과일로 가득 찬 뿔을 든 여인은 흙을 의인화한 인물입니다. 한편, 물병을 든 수염 난 남성은 물을 상징합니다. 발치에 조각된 돌고래는 비늘이 있는 물고기처럼 양식화된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주전자와 수반 Ewer and Basin

다니엘 셰플러 1세
아우크스부르크, 1711~1715년경
은에 도금
그린볼트박물관, IV 155, IV 182

Daniel I Schäffler
Augsburg, c. 1711-1715
Gilded silver
Grünes Gewölbe, IV 155, IV 182

바로크 시대에는 커다란 은제 그릇이 유행했습니다. 귀중한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만든 크고 훌륭한 은제품은 자신의 지위와 부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는 화려하게 도금된 이 주전자와 수반 세트를 1719년에 열린 아들 아우구스투스 3세의 결혼식을 위해 구입했습니다. 이 때 수집된 도금된 용기들은 선제후 가문에 전해지던 보물들과 함께 전시되다가, 1723년 새롭게 설치된 ‘도금 은의 방’에 식기 세트 형식으로 진열되었습니다.

타조 형상의 타조알 술잔

Ostrich Egg Goblet in the Form of an Ostrich

엘리아스 가이어

라이프치히, 1589~1595년경

타조알, 은에 도금

그린볼트박물관, III 228

Elias Geyer

Leipzig, c. 1589-1595

Ostrich egg, gilded silver

Grünes Gewölbe, III 228

16세기 초 뛰어난 금세공사였던 엘리아스 가이어는 이 작품으로 말미암아 작센 선제후들이 사랑하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드레스덴 궁정은 타조알에 금세공 장식을 더해 타조 모양으로 만든 이 독특한 술잔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타조는 여러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소화를 위해 돌을 삼키는 타조의 습성을 잘못 이해하여 철을 먹는다고 믿었고, 이 때문에 타조를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는 동물로 여겼습니다. 입에 물고 있는 편자는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또한 타조는 알을 모래에 묻어 햇빛으로 부화시키는 습성 때문에 '원죄 없는 잉태'를 하신 성모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체인이 달린 병 Chain Bottle

게오르크 프리벨
아우크스부르크, 1711~1715년경
은에 도금
그린볼트박물관, IV 263

Georg Friebe
Augsburg, c. 1711-1715
Gilded silver
Grünes Gewölbe, IV 263

도금된 은으로 만든 병의 표면을 돌을새김으로 섬세하게 장식한 이 병에는 뚜껑과 몸통을 연결하는 체인이 달려있습니다. 드레스덴 궁정에서는 이 병을 얼음 통에 넣어, 연회에서 와인을 시원하게 보관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가 소장 하였던 화려한 은제품들은 대부분 7년 전쟁으로 인한 재정난 때문에 녹여져 은화로 유통되었습니다. 이 병의 밑바닥에 새겨진 무게는 이러한 예술품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했음을 보여줍니다.

체인이 달린 병 Chain Bottle

독일 남부, 18세기 초
금적유리, 은에 도금
그린볼트박물관, IV 201

Southern Germany, early 18th century
Ruby glass, gilded silver
Grünes Gewölbe, IV 201

이 유리병의 붉은 빛깔은 고난도의 제작 기술을 갖춘 독일 남부의 장인들만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루비빛을 내기 위해서는 유리가 녹았을 때 특별한 금속 산화물을 첨가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적유리(金赤琉璃)로 만든 용기는 진기한 물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금적유리 용기는 금세공장식을 더해 보다 아름답고 튼튼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전구 같은 둥근 몸체에 더해진 주름과 금속 체인은 이러한 용기에 자주 쓰인 장식입니다.

순례자의 물병 Pilgrim's Bottle

마이센, 1710~1715년경
뵘트거 석기, 은에 도금
그린볼트박물관, V 437

Meissen, c. 1710-1715
Böttger stoneware, gilded silver
Grünes Gewölbe, V 437

검붉은색을 띠는 뵘트거 석기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 석기의 이름은 유럽 최초로 경질자기를 발명한 요한 프리드리히 뵘트거(Johann Friedrich Böttger, 1682~1719)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뵘트거 석기는 자기의 발명을 예고하듯, 기존 유럽의 도기에 비해 매우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용기는 순례자들이 들고 다니던 귀금속 물병의 모양을 모방해 만들었습니다. 석기의 단단한 재질 덕분에 기존에 금속 재질로만 만들 수 있던 형태를 도자기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 유니콘 형상의 술잔 Cup in the Form of a Sea Unicorn

엘리아스 가이어
라이프치히, 1600년경
은에 도금, 금 에나멜의 흔적, 바다방석고둥
그린볼트박물관, IV 133

Elias Geyer
Leipzig, c. 1600
Gilded silver, traces of gold enamel,
turban-snail
Grünes Gewölbe, IV 133

엘리아스 가이어는 자연물을 사용하여 창의적인 작품을 잘 만들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이어는 바다 유니콘의 꼬리를 바다방석고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위로는 한 손에 삼지창을 든 포세이돈이 다른 손으로 고삐를 잡고 있습니다. 자연물과 인공물을 혼합한 작품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전을 상징합니다.

여성 형상의 술잔

Goblet in the Form of a Maiden

프리드리히 힐레бран트

뉘른베르크, 1603~1608년경

은에 대부분 도금, 바다방석고둥

그린볼트박물관, III 184

Friedrich Hillebrand

Nuremberg, c. 1603-1608

Mostly gilded silver, turban-snail

Grünes Gewölbe, III 184

바로크 시대 궁정에서 유행한 드레스를 입은 이 여인은 머리 위로 높이 잔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은 결혼식에서 ‘술자리 놀이’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걸쇠에 걸려 있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잔 뿐 아니라, 종 모양의 치마 역시 잔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치마에 담긴 술을, 신부는 화려한 금세공 장식을 더한 바다방석고둥 잔을 비워야 했습니다.

용을 무찌르는 성 게오르기우스 형상의 자동기계 Automaton Depicting St. George Slaying the Dragon

요아힘 프리스
아우크스부르크, 1618~1622년경
은에 도금, 철
그린볼트박물관, IV 154

Joachim Fries
Augsburg, c. 1618-1622
Gilded Silver, iron
Grünes Gewölbe, IV 154

중세 기사들의 모습을 한 성 게오르기우스가 용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모습입니다. 제물로 바쳐진 공주는 그의 도움으로 도망쳐 나오고 있습니다. 악으로부터의 승리와 용맹함을 상징한 성 게오르기우스는 유럽의 군주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말의 머리 부분을 열면 술을 담을 수 있는 잔이 되어 연회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닥에는 태엽장치로 움직이는 바퀴가 있어서 탁자 위에서 굴러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테나

Statuette of Minerva

아브라함 드렌트베트 1세
아우크스부르크, 1650년경
은, 나무
그린볼트박물관, IV 305

Abraham I Drentwett
Augsburg, c. 1650
Silver, wood
Grünes Gewölbe, IV 305

‘은의 방’에 전시되었던 작품 중에 지금까지 전해지는 단 세 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대형 은 조각상은 재료 자체가 고가였을 뿐 아니라, 제작하는 데도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매우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고대 그리스·로마의 신들을 주제로 한 은 조각품은 귀족들의 수집 대상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아테나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답게 투구와 갑옷을 갖추고, 손을 벌려 우아한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은의 방에 있었던 것으로 전하는 다른 아테나 상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우물 모양의 작은 세공품 Miniature Well

마르틴 보리슈
드레스덴, 1630년경
은에 부분 도금
그린볼트박물관, IV 347

Martin Borisch
Dresden, c. 1630
Partly gilded silver
Grünes Gewölbe, IV 347

바로크 시대에는 귀한 손님에 대한 환영의 뜻으로 ‘빌콤(willkomm)’이라고 불리는 환영주를 큰 잔에 건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잔은 귀중한 재료로 제작했으며, 제품의 형태는 대개 사용될 장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물 모양을 한 이 특이한 형태의 작품도 이러한 용도의 술잔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물 밑 바닥에는 소유주를 나타내는 작센 선제후의 문장이 찍혀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 맥주잔 Nephrite Tankard with Lid

금세공 장식 | 엘리아스 가이어
라이프치히, 1600년경
연옥, 은에 도금
그린볼트박물관, IV 339

Mounts | Elias Geyer
Leipzig, c. 1600
Nephrite, gilded silver
Grünes Gewölbe, IV 339

이 맥주잔은 진한 녹색빛의 연옥으로 몸체를 만들고, 도금된 은으로 제작한 장식들을 더해 마무리했습니다. 이 잔을 제작한 엘리아스 가이어는 17세기 초 가장 뛰어난 금세공사 중 한 명으로, 작센의 선제후들은 귀중한 자연물을 활용해 독창적인 금세공품을 제작하는 이 장인의 작품을 사랑했습니다. 대비되는 두 재료를 조화롭게 구성한 이 잔은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할아버지인 요한 게오르크 2세(Johann Georg II, 재위 1656~1680)가 구입한 것입니다. 당시 드레스덴 호기심의 방에는 가이어가 만든 연옥 잔이 이미 여러 점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코뿔소의 뿔로 만든 잔 Rhinoceros Horn Goblet

조각 | 게오르크 프룬트 추정
금세공 장식 | 한스 렌커 2세
아우크스부르크, 1652~1653년경
코뿔소의 뿔, 은에 도금
그린볼트박물관, VI 247

Carving | attributed to Georg Pfründt
Mounting | Hans II Lencker
Augsburg, c. 1652-1653
Rhinoceros horn, gilded silver
Grünes Gewölbe, VI 247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동물인 코뿔소의 뿔은 바로크 시대 군주 수집가들이 매우 귀중하게 여긴 재료였습니다. 코뿔소의 뿔은 천연재료 중에서도 단단한 편이어서 세공하기 까다로웠습니다. 잔의 표면을 가득 채운 장식은 재료의 이국적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손잡이에는 아메리카 원주민 한 쌍을, 몸통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네 대륙을 의인화한 인물을 조각하였습니다. 받침대에서는 코뿔소와 코끼리, 악어와 같은 유럽에서 보기 힘든 맹수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잔의 뚜껑에는 바로크 예술의 전형적인 모티프인 에로스가 장식되었습니다.

삼각형 술잔

Triangular Nephrite Goblets

엘리아스 가이어

라이프치히, 1604~1605년경

은에 도금, 연옥

그린볼트박물관, IV 196, IV 262

Elias Geyer

Leipzig, c. 1604-1605

Gilded silver, nephrite

Grünes Gewölbe, IV 196, IV 262

17세기 초 최고의 금세공사로 꼽혔던 엘리아스 가이어의 독창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삼각형의 형태가 독특한 이 잔은 얇게 세공한 석재를 조립하여 만들었습니다. 가이어는 석재의 연결 부위를 도금된 은으로 만든 틀로 덮어 이음새를 단단히 할 뿐 아니라 장식적으로도 풍부하게 했습니다. 또한 손잡이와 잔 사이에는 세 점의 두루마리 모양 장식 사이로 악공들을 조각하여, 얇게 세공된 석재 잔의 가벼움과 정교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카메오 장식의 뚜껑이 달린 술잔 Lidded Goblet with Cameo Decoration

아브라함 프라치
아우크스부르크, 1717~1721년경
은에 도금, 수정, 카메오, 마노
그린볼트박물관, V 10

Abraham Pratsch
Augsburg, c. 1717-1721
Gilded silver, rock crystal, cameos, agate
Grünes Gewölbe, V 10

카메오는 서로 다른 색상의 층이 있는 보석을 조각하여 만듭니다. 이 작품은 다양한 색의 카메오로 잔의 곳곳을 장식했습니다. 손잡이도 섬세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네 개의 두루마리 장식으로 손잡이를 만들고, 그 안에 투명한 수정을 넣어 금속제 그릇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귀중한 재료로 만든 이러한 대형 잔은 대개 의식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에 수정으로 만든 큰 아테나 흉상을 더한 것으로 보아, 이 잔은 순수하게 전시를 위해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배 형상의 주전자를 위한 가죽 케이스

Leather Case for the Ewer in the Form of a Ship

가죽, 나무

그린볼트박물관, E 185

Leather, wood

Grünes Gewölbe, E 185

돌고래 장식 수정 그릇을 위한 가죽 케이스

Leather Case for the Rock Crystal Bowl with Dolphin

밀라노, 1724년경

가죽, 나무, 금, 천

그린볼트박물관, E 144

Milan, c. 1724

Leather, wood, gold, textile

Grünes Gewölbe, E 144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는 유럽 각지에서 최고의 예술품을 주문했습니다. 수정, 상아와 같이 쉽게 파손되는 귀중한 재료로 만든 작품을 손상 없이 옮기기 위해서는 용기에 딱 맞는 케이스가 필요했습니다. 여기 있는 두 점의 케이스는 각각 코뿔소의 뿔로 만든 <배 형상의 주전자>와 <돌고래 장식 수정 그릇>을 위한 것입니다.

두 개의 주둥이가 달린 뚜껑이 있는 그릇 Bowl with Lid and Two Spouts

그릇 | 밀라노, 1570년경
금세공 장식 | 프라이부르크, 1570년경
수정, 은에 도금
그린볼트박물관, V 368

Bowl | Milan, c. 1570
Mounts | Freiburg im Breisgau, c. 1570
Rock crystal, gilded silver
Grünes Gewölbe, V 368

조개 모양 그릇 Bowl in the Shape of a Shell

오타비오 미세로니의 공방
프라하, 1600년경
수정, 금, 루비, 에나멜
그린볼트박물관, V 270

Workshop of Ottavio Miseroni
Prague, c. 1600
Rock crystal, gold, rubies, enamel
Grünes Gewölbe, V 270

고대 그리스인들은 수정을 영원히 녹지 않는 얼음이라 믿었습니다. 16세기 초 알프스 중앙 지역에서 나는 수정은 크고 투명하여 예술품의 재료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처의 밀라노가 수정 공예의 중심지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미세로니 공방은 이 단단한 재료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유려하게 표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수정으로 제작한 용기는 금속 세공의 중심지였던 독일 남부로 보내져 더욱 화려하게 장식되기도 했습니다.

손잡이가 달린 그릇 Bowl with Handles

조반니 바티스타 메텔리노
밀라노, 1715년경
수정, 은에 일부 도금, 터키석
그린볼트박물관, V 222

Giovanni Battista Metellino
Milan, c. 1715
Rock crystal, partly gilded silver, turquoises
Grünes Gewölbe, V 222

손잡이가 달린 그릇을 위한 가죽 케이스 Leather Case for the Bowl with Handles

가죽, 나무, 금, 천
그린볼트박물관, E 155

Leather, wood, gold, textile
Grünes Gewölbe, E 155

밀라노 최고의 수정 세공사였던 조반니 바티스타 메텔리노의 작품과, 이 용기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케이스입니다. 메텔리노는 수정을 활용한 창의적인 장식으로 유명했습니다. 수정을 깎아 만든 용 모양의 손잡이와, 터키석과 도금된 은을 사용하여 견고함과 장식성을 더한 받침대가 특징적입니다. 잔의 몸통에는 작은 새들이 노니는 숲의 풍경이 섬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수정 그릇에 꼭 맞게 제작된 케이스는 내부를 부드러운 벨벳으로 채워 작품이 손상 없이 보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겉면에도 금박 장식을 더해 그 자체로도 가치 있는 예술품이 되도록 했습니다.

악타이온 형상의 음료 용기

Drinking Vessel in the Shape of Aktaeon

예레미아스 리터

뉘른베르크, 1609~1629년경

은에 도금, 산호

그린볼트박물관, IV 261

Jeremias Ritter

Nuremberg, c. 1609-1629

Gilded silver, coral

Grünes Gewölbe, IV 261

사냥꾼 악타이온은 아르테미스가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사슴이 되는 벌을 받습니다. 이 작품은 사슴이 된 악타이온의 뿔을 산호로 표현하였습니다. 산호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군주 수집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천연 재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홍빛이 나는 지중해산 산호는 값지고 이국적인 자연물로 높이 평가되었고, 다양한 장식품을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소금 그릇 Salt Cellars

1581년 이전
은에 도금, 터키석, 산호
그린볼트박물관, IV 159, IV 160

Before 1581
Gilded silver, turquoises, coral
Grünes Gewölbe, IV 159, IV 160

산호로 다리를 만든 이 소금 그릇은 실제로 사용했다기보다는 전시용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붉은 산호는 도금된 은과 색이 잘 어울려 다양한 장식품에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산호가 바다에서는 유연하지만, 육지로 나오면 단단한 돌로 변하는 신비한 생물이라고 믿었습니다.

타원형 함 Oval Box

드레스덴 추정, 1710년경
옥수, 은에 도금, 루비, 다이아몬드
그린볼트박물관, VI 7 bb

Probably Dresden, c. 1710
Chalcedony, gilded silver, rubies, diamonds
Grünes Gewölbe, VI 7 bb

팔각형 상자 Octagonal Box

프랑스 추정, 1700년경
홍옥수, 금, 에나멜, 다이아몬드
그린볼트박물관, V 3 rrrr

Probably France, c. 1700
Cornelian, gold, enamel, diamonds
Grünes Gewölbe, V 3 rrrr

타원형 함 Oval Box

드레스덴, 18세기 중반
금, 자개판
그린볼트박물관, V 629

Dresden, mid-18th century
Gold, mother-of-pearl plaques
Grünes Gewölbe, V 629

옥수, 홍옥수, 자개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세 점의 함입니다. 후기 바로크 시대의 귀족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작은 상자가 유행했습니다. 이를 갈란테리엔 (Galanterien) 또는 갈란테리바렌(Galanteriwaren)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사탕이나 코담배 같은 기호품, 그리고 인장이나 거울 등 개인적인 소지품을 담았습니다.

황제 흉상과 황후 흉상

Bust of an Emperor and Bust of an Empress

드레스덴, 1706년 이전

헬리오트로프, 은에 도금, 카메오, 루비,
다이아몬드

그린볼트박물관, VI 115, VI 113

Dresden, before 1706

Heliotrope, gilded silver, cameos, rubies, diamonds

Grünes Gewölbe, VI 115, VI 113

18세기 초 유럽의 군주들은 로마 황제와 황후를 묘사한 작은 흉상을 많이 수집했습니다. 이 두 점의 흉상은 붉은 점이 있는 암녹색의 석재인 헬리오트로프로 만들었습니다. 카메오와 루비로 장식된 받침대는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를 위해 여러 작품을 제작한 요한 멜히오르 딩글링거의 솜씨로 추정됩니다.

터번을 쓴 아프리카인 남성 흉상과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흉상 Bust of an African Man with Turban and Bust of an Indian Woman

17세기 말~18세기 초
다색 석재, 대리석, 나무
그린볼트박물관, VI 159, VI 170

Late 17th-early 18th century
Multi-colored stones, marble, wood
Grünes Gewölbe, VI 159, VI 170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인물을 묘사한 흉상입니다. 아프리카 인에게는 흰 터번을,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는 붉은 깃털 장식을 씌워 각 인물을 특징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얼굴 표현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피부와 옷의 색을 대조한 감각과 솜씨 또한 뛰어납니다.

퍼레이드 장식함 Parade Casket

자개 작업 | 구자라트(인도), 16세기 말

장식 | 니콜라우스 슈미트, 뉘른베르크, 1592~1594년경

자개, 채색된 나무, 은에 도금, 벨벳

그린볼트박물관, III 55

Mother-of-pearl work | Gujarat(India), late 16th century

Mount | Nikolaus Schmidt, Nuremberg, c. 1592-1594

Mother-of-pearl, painted wood, gilded silver, velvet

Grünes Gewölbe, III 55

16~17세기 유럽에서는 인도 구자라트에서 수입한 자개 장식품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뉘른베르크의 금세공사 니콜라우스 슈미트는 인도에서 가져온 귀한 자개로 이 장식함을 제작했습니다. 나무 함에 방패 모양으로 자른 자개판을 하나하나 작은 핀으로 고정시킨 다음, 테두리에 도금된 은으로 만든 장식틀을 둘러했습니다.

앵무새 형상의 음료용기

Drinking Vessel in the Shape of a Parrot

한스 라폴트 1세

뉘른베르크, 1593~1602년경

은에 도금, 자개판, 에메랄드, 루비, 에나멜, 채색 흔적
그린볼트박물관, III 151

Hans I Rappolt

Nuremberg, c. 1593-1602

Gilded silver, mother-of-pearl plaques, emeralds, rubies, enamel, traces of paint
Grünes Gewölbe, III 151

16~17세기 뉘른베르크의 금세공사들은 인도에서 수입한 작품의 영향을 받아 자개로 장식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것처럼 앵무새의 깃털을 작은 자개판으로 표현하고, 세부를 음각으로 섬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앵무새의 머리 부분을 열어 음료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자개가 손상되기 쉬워서 아주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때만 사용되었습니다.

두 무어인과 낙타 Camel with Two Moors

프랑크푸르트 추정, 1706년 이전
바로크 진주, 금, 은에 도금, 에나멜,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그린볼트박물관, VI 116

Probably Frankfurt am Main, before 1706
Baroque pearl, gold, gilded silver, enamel, diamonds, emeralds
Grünes Gewölbe, VI 116

과거 유럽에서는 변형되고 일그러진 진주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금세공사들은 진주에 색색의 보석과 금 장식 등을 더해 아름다운 장식품을 제작했습니다. 독특한 형태의 진주로 보석함을 지고 있는 낙타를 묘사한 이 작품의 받침대에는 진귀한 보석이 담긴 상자와 무어인이 등장하는 이국적인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숫염소 Resting Male Goat

프랑크푸르트, 1706년 이전
바로크 진주, 금, 은에 도금, 에나멜, 루비, 다이아몬드
그린볼트박물관, VI 83 f

Frankfurt am Main, before 1706
Baroque pearl, gold, gilded silver, enamel, rubies, diamonds
Grünes Gewölbe, VI 83 f

남성적인 힘을 상징하는 숫염소는 그리스 신화 속 디오니소스의 축제 행렬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예술 작품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작은 조각상으로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진주로 염소의 몸을 만들고 금으로 머리와 다리를 표현했습니다. 염소가 쉬고 있는 받침대에는 로마의 건국 신화와 관련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강가에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두 명의 아기는 훗날 로마를 건국하게 될 로물루스와 쌍둥이 동생 레무스입니다.

성 세바스티아누스 St. Sebastian

프랑크푸르트, 1706년 이전
바로크 진주, 금, 에나멜, 은에 도금,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그린볼트박물관, VI 106

Frankfurt am Main, before 1706
Baroque pearls, gold, enamel, gilded silver, diamonds, emeralds
Grünes Gewölbe, VI 106

그리스·로마 신화나 이국적인 주제, 그리고 성서와 성인의 이야기는 바로크 예술에서 인기 있는 주제였습니다. 이 작품 역시 초기 기독교의 성인 성 세바스티아누스를 진주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던 그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살을 맞는 처형을 받게 됩니다. 뒤틀린 진주는 그가 받는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듯 합니다. 받침대에는 성 세바스티아누스의 독실한 신앙을 해바라기 등의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배 형상의 탁자 장식

Table Decoration in the Form of a Ship

한스 안톤 린트

뉘른베르크, 1603~1609년경

앵무조개, 은에 일부 도금

그린볼트박물관, III 149

Hans Anton Lind

Nuremberg, c. 1603-1609

Nautilus shell, partly gilded silver

Grünes Gewölbe, III 149

배 형상의 탁자 장식은 군주가 사용할 작은 식기류를 담는 용기로 중세 시대 때부터 유행했습니다. 15세기부터는 귀족들의 연회용 술잔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뉘른베르크의 금세공사들은 배 형상의 술잔을 잘 만들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작품은 앵무조개로 선체를 표현하고 그 주변을 도금된 은 장식틀로 감쌌습니다. 바닥에는 바퀴가 있어 탁자 위에서 굴릴 수 있었습니다. 술잔과 분리되는 갑판 부분에는 무기를 들고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선문 형태의 장식 조각과 오벨리스크 Triumphal Architecture and Two Obelisks

요한 하인리히 쾨흘러
드레스덴, 1701~1705년경
은에 도금, 금, 에나멜, 카메오, 보석
그린볼트박물관, VI 41, VI 40, VI 42

Johann Heinrich Köhler
Dresden, c. 1701-1705
Gilded silver, gold, enamel, cameos, precious stones
Grünes Gewölbe, VI 41, VI 40, VI 42

드레스덴의 궁정 보석 세공사 요한 하인리히 쾨흘러는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를 위해 보석 장식품을 여럿 제작했습니다. 개선문과 오벨리스크는 군주의 영광을 상징하는 소재로 유럽의 궁정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쾨흘러는 금, 보석, 작은 카메오 등으로 개선문과 오벨리스크를 화려하게 장식하여, 크기는 작지만 위엄이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진주 왕관을 쓴 인물을 비롯하여 아프리카인을 표현한 조각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는 이국적인 소재를 좋아해서 이를 주제로 한 장식품들을 많이 수집하였고, 주로 '금은보화의 방'에 전시하였습니다.

바다방석고둥 술잔 Turban-snail Goblet

자개 작업 | 코르넬리스 판 벨레킨, 암스테르담, 17세기 후반
금세공 장식 | 요한 하인리히 쾨흘러, 드레스덴, 1724년
바다방석고둥, 은에 도금
그린볼트박물관, III 142

Mother-of-pearl work | Cornelis van Bellekin, Amsterdam,
2nd half of 17th century
Mount | Johann Heinrich Köhler, Dresden, 1724
Turban-snail, gilded silver
Grünes Gewölbe, III 142

요한 하인리히 쾨흘러는 바다와 관련된 신화 속 주인공들을 묘사한 손잡이 위에 아
기 천사가 새겨진 고둥을 올려 잔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잔을 들어올리고 있는 인물
은 포세이돈의 아들 트리톤으로,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물고기인 인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해마와 돌고래, 거북이가 장식되었습니다. 본래 잔의 입
부분에는 삼지창을 든 포세이돈 장식이 함께 있었지만,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로즈 컷 다이아몬드 장식 세트 중
곡선형의 구두 조임쇠 한 쌍과 무릎 조임쇠 한 쌍
A Pair of Curved Shoe Buckles and a Pair of Knee Buckles
from the Rose-cut Diamond Garniture

크리스티안 아우구스트 글로비히의 공방
드레스덴, 1782~1789년경
다이아몬드, 은, 금, 강철
그린볼트박물관, VIII 12, VIII 14

Workshop of Christian August Globig
Dresden, c. 1782-1789
Diamonds, silver, gold, steel
Grünes Gewölbe, VIII 12, VIII 14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는 궁정 행사 때 착용할 아홉 종류의 보석 장식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머리 장식, 작은 검, 지팡이, 단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각 장식 세트는 사용된 보석에 따라 로즈 컷 다이아몬드 장식 세트, 루비 장식 세트, 에메랄드 장식 세트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 네 점의 조임쇠는 로즈 컷 다이아몬드 장식 세트의 일부입니다. 큰 조임쇠는 구두에, 작은 조임쇠는 무릎 부분에 달았습니다.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장식 세트 중 단추 Buttons from the Brilliant-cut Diamond Garniture

이그나츠 콘라트 플뢰테를
드레스덴, 1827년
다이아몬드, 은에 일부 도금
그린볼트박물관, VIII 20, VIII 21

Ignaz Konrad Plödterl
Dresden, 1827
Diamonds, partly gilded silver
Grünes Gewölbe, VIII 20, VIII 21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장식 세트 중 왕의 의복에 달았던 단추들입니다. 큰 단추는 외투에 달았고, 작은 단추는 조끼에 달았습니다.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는 여러 보석들 중에서도 광채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따라서 보석 장식 세트 가운데 제일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마노 장식 세트 중 모자에 다는 깃털 장식 Hat Aigrette from the Agate Garniture

요한 멜히오르 딩글링거
드레스덴, 1719년 이전
다이아몬드, 금, 은에 도금
그린볼트박물관, VIII 24

Johann Melchior Dinglinger
Dresden, before 1719
Diamonds, gold, gilded silver
Grünes Gewölbe, VIII 24

마노 장식 세트에 포함된 모자 장식입니다. 마노는 흰 줄무늬가 있는 반투명한 회색 또는 어두운 붉은 색의 보석입니다. 마노와 어울리도록 모자 장식의 가운데를 분홍 빛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했습니다. 그 위로는 깃털을 닮은 다이아몬드 줄기가 길게 솟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모자 장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자 장식은 뒷면에 깃털을 꽂아 움직일 때마다 깃털과 보석의 광채가 함께 물결치도록 했습니다.

홍옥수 장식 세트 중 타원형의 사냥용 코담뱃갑 Tall Oval Hunting Snuff Box from the Carnelian Garniture

석재 세공 | 요한 크리스토프 휘브너
보석 세공 | 요한 멜히오르 딩글링거의 공방
드레스덴, 1720~1721년경
홍옥수, 다이아몬드, 금
그린볼트박물관, VIII 235

Stone cut | Johann Christoph Hübner
Jeweller work | workshop of Johann Melchior Dinglinger
Dresden, c. 1720-1721
Carnelian, diamonds, gold
Grünes Gewölbe, VIII 235

홍옥수 장식 세트에 포함된 코담뱃갑입니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3세의 결혼식을 기념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홍옥수 장식 세트에는 다른 보석 장식 세트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독특한 물품이 많습니다. 코담뱃갑의 뚜껑에는 홍옥수의 붉은 무늬를 살려 나비를 조각했습니다.

반지 Ring

18세기

브릴리언트 컷 녹색 다이아몬드, 작은 다이아몬드, 은, 금
그린볼트박물관, VIII 46

18th century

Green diamond in brilliant cut, small diamonds, silver, gold
Grünes Gewölbe, VIII 46

반지 Ring

1733년 이전

브릴리언트 컷 분홍색 다이아몬드, 작은 다이아몬드, 은, 금
그린볼트박물관, VIII 50

Before 1733

Rose colored diamond in brilliant cut, small diamonds, silver, gold
Grünes Gewölbe, VIII 50

반지 Ring

18세기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은
그린볼트박물관, VIII 43

18th century

Diamonds in brilliant cut, silver
Grünes Gewölbe, VIII 43

‘아 주르’ 기법으로 세공한 귀걸이

Two à jour-mounted Earrings

아우구스트 고텔프 글로비히
드레스덴, 1819년
다이아몬드, 은, 금
그린볼트박물관, VIII 39

August Gotthelf Globig
Dresden, 1819
Diamonds, silver, gold
Grünes Gewölbe, VIII 39

19세기 초 제작된 작센 왕비의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 쌍입니다. 은줄이나 금줄로 보석이 들어갈 자리를 만든 다음, 그 위에 보석을 끼워 넣는 ‘아 주르’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아 주르’ 기법으로 세공하면 보석의 뒷면으로도 빛이 투과되어 더욱 반짝일 수 있습니다.

토파즈 컬렉션 중 마운팅 되지 않은 여덟 점의 토파즈
Eight Faceted, Unmounted Stones from the Topaz Collection

그린볼트박물관, VIII 177 A~H

Grünes Gewölbe, VIII 177 A-H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와 아들 아우구스투스 3세는 토파즈 장식세트를 만들기 위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채굴한 토파즈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식 세트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몇몇 토파즈들은 이렇게 보석으로만 남아있습니다.

로즈 컷 다이아몬드 장식 세트 중 작은 검과 칼집
Small Sword with Scabbard
from the Rose-cut Diamond Garniture

크리스티안 아우구스트 글로비히와 아우구스트 고텔프 글로비히
드레스덴, 1782~1789년경
다이아몬드, 금, 은, 강철, 벨벳
그린볼트박물관, VIII 16

Christian August Globig and August Gotthelf Globig
Dresden, c. 1782-1789
Diamonds, gold, silver, steel, velvet
Grünes Gewölbe, VIII 16

로즈 컷 다이아몬드 911점으로 만든 작은 검과 칼집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의장용 검이기 때문에 매우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어떤 보석을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군주의 지위가 드러나므로, 이러한 장식 세트에는 최상급의 보석이 사용되었습니다.

황금양모기사단 훈장

Badge of the Order of the Golden Fleece

장 자크 팔라르

제네바 또는 빈, 1755~1756년경

토파즈, 다이아몬드, 금, 은

그린볼트박물관, VIII 5

Jean Jacques Pallard

Geneva or Vienna, c. 1755-1756

Topazes, diamonds, gold, silver

Grünes Gewölbe, VIII 5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는 1697년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폴란드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황금양모기사단에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722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부터 기사단 훈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훈장을 귀중한 보석으로 장식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3세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점의 훈장을 자신의 취향대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토파즈를 가운데 두고 그 주변에 369점의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이 훈장도 아우구스투스 3세가 주문한 것입니다.

켈하임산 석재로 만든 장식 화병 Ornate Vase Made of Kehlheim Stone

디자인 및 금속 세공 | 요한 멜히오르 딩글링거
에나멜 초상 |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딩글링거
석재 세공 | 요한 크리스티안 키르히너 추정
드레스덴, 1719~1721년경
켈하임 석재, 카메오, 은에 도금, 금, 에나멜, 다양한 원석
그린볼트박물관, V 136

Design and goldsmith's work | Johann Melchior Dinglinger
Enamel portraits | Georg Friedrich Dinglinger
Stone cutting | attributed to Johann Christian Kirchner
Dresden, c. 1719-1721
Kehlheim stone, cameos, gilded silver, gold, enamel, various gemstones
Grünes Gewölbe, V 136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를 위해 수많은 장식품을 제작했던 요한 멜히오르 딩글링거의 작품입니다. 도금된 은으로 만든 정교한 장식천이나, 카메오, 에메랄드 등을 더해 화려하게 장식된 윗부분과는 달리 받침대 부분은 형태가 다소 단순합니다. 화병의 표면과 카메오, 그리고 받침대 부분에는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목신(牧神) 판을 묘사하였습니다. 뚜껑의 가장 위에 있는 손잡이 장식과 목 부분에는 아우구스투스 왕을 의미하는 모노그램 “AR(Augustus Rex)”을 새겨 넣었습니다.

철로 만든 물병 Ewer in Cut Iron

요한 멜히오르 딩글링거
드레스덴, 1727년경
철, 은에 도금
그린볼트박물관, V 433

Johann Melchior Dinglinger
Dresden, c. 1727
Iron, gilded silver
Grünes Gewölbe, V 433

단단한 철을 뛰어난 솜씨로 가공해 만든 물병입니다. 정교하고 섬세한 장식이 돋보입니다. 이 작품을 본 당시의 사람들은 마치 은으로 만든 것 같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불룩하게 튀어나온 물병의 몸체에는 고대에 행해진 희생제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병의 주둥이 부분에는 목신 판의 얼굴이 조각되었습니다. 받침대 가장 아랫부분에서는 작센을 상징하는 쌍검 표식,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를 의미하는 “AR(Augustus Rex)”, 폴란드 왕실을 의미하는 독수리와 기병 등 네 가지의 상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이마리’ 자기의 방

Room of Japanese Porcelain in the “Imari” Style

유럽의 취향에 맞게 일본에서 수출용으로 제작된 일본의 ‘이마리’ 자기는 화려한 색채와 금 장식이 특징입니다. 이 자기는 바로크 양식과도 잘 어울려서 18세기 초 유럽에서 인기가 많았으며, 매우 비싸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우구스투스는 일본 궁전에서도 관람객의 눈에 잘 띄는 2층 대회랑에 이마리 자기를 전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1729년 궁정 전속 건축가였던 마테우스 다니엘 뢰펠만에게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실제 도자기들을 전시할 방의 입면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이 도면은 일본 ‘이마리’ 자기의 방을 그린 것으로, 아치형 창문 위쪽 선반에서 〈일본 장식 자기 세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 ‘이마리’ 자기의 방 입면도

Elevation for the Room of Japanese Porcelain in the “Imari” Style

마테우스 다니엘 뢰펠만

드레스덴, 1729년

종이에 먹과 수채

드레스덴 기록 보관소, 10006 Oberhofmarschallamt, P, Cap. II, No. 15, Bl. 26a/1

Matthäus Daniel Pöppelmann

Dresden, 1729

Paper, ink, water color

Saxon State Archives Dresden, 10006 Oberhofmarschallamt, P, Cap. II, Nr. 15, Bl. 26a/1

일본 장식 자기 세트

Five-piece Japanese Garniture

뚜껑이 있는 항아리

Covered Jar

아리타, 에도 시대, 1700~1720년경

자기, 청화와 적색 상회안료,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9070

Arita, Edo period, c. 1700-1720

Porcelain, decorated in underglaze blue and overglaze colors iron-red and gold

Porzellansammlung, PO 9070

비커 형태의 병

Beaker Vase

아리타, 에도 시대, 1700~1720년경
자기, 청화와 적색 상회안료,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9143

Arita, Edo period, c. 1700-1720

Porcelain, decorated in underglaze blue and overglaze colors iron-red and gold
Porzellansammlung, PO 9143

뚜껑이 있는 항아리

Covered Jar

아리타, 에도 시대, 1700~1720년경
자기, 청화와 적색 상회안료,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5850

Arita, Edo period, c. 1700-1720

Porcelain, decorated in underglaze blue and overglaze colors iron-red and gold
Porzellansammlung, PO 5850

비커 형태의 병

Beaker Vase

아리타, 에도 시대, 1700~1720년경
자기, 청화와 적색 상회안료,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995

Arita, Edo period, c. 1700-1720

Porcelain, decorated in underglaze blue and overglaze colors iron-red and gold
Porzellansammlung, PO 995

뚜껑이 있는 항아리

Covered Jar

아리타, 에도 시대, 1700~1720년경
도자기, 청화와 적색 상회안료,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9071

Arita, Edo period, c. 1700-1720

Porcelain, decorated in underglaze blue and overglaze colors iron-red and gold
Porzellansammlung, PO 9071

중국 녹색자기의 방

Room of Chinese Porcelain in the “Famille Verte” Style

일본 궁전 2층의 두 번째 방인 이 곳에는 녹색이 주를 이루는 중국 자기가 전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입면도 위 아치형 문의 가장 높은 곳과 각 벽면의 중앙에서 〈중국 사자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점의 〈중국 자기 병〉 또한 벽면의 아랫부분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후 유럽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자기를 녹색 계열이라는 뜻으로 ‘파미유 베르트(famille verte)’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녹색자기의 방 입면도

Elevation for the Room of Chinese Porcelain in the “Famille Verte” Style

마테우스 다니엘 뢰펠만

드레스덴, 1729년

종이에 먹과 수채

드레스덴 기록 보관소, 10006 Oberhofmarschallamt, P, Cap. II, No. 15, Bl. 26b/1

Matthäus Daniel Pöppelmann

Dresden, 1729

Paper, ink, water color

Saxon State Archives Dresden, 10006 Oberhofmarschallamt, P, Cap. II, Nr. 15, Bl. 26b/1

중국 사자상 한 쌍

Pair of Chinese Lions

숫사자상

Figure of a Guardian Lion (Male)

경덕진, 청, 1700~1720년경

자기, 상회안료로 ‘에마유 쉬르 비스퀴’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3635

Jingdezhen, Qing dynasty, c. 1700-1720

Porcelain, “email sur biscuit”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Porzellansammlung, PO 3635

암사자상

Figure of a Guardian Lion (Female)

경덕진, 청, 1700~1720년경

자기, 상회안료로 ‘에마유 쉬르 비스퀴’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3634

Jingdezhen, Qing dynasty, c. 1700-1720

Porcelain, "email sur biscuit"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Porzellansammlung, PO 3634

중국 자기 병

Chinese Porcelain Vases

표주박 모양 병

Huluping Shaped Vase

경덕진 청, 1700~1720년경

자기,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3356

Jingdezhen, Qing dynasty, c. 1700-1720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and gold

Porzellansammlung, PO 3356

밸러스터 형태의 병

Baluster Shaped Vase

경덕진, 청, 1700~1720년경

자기,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6551

Jingdezhen, Qing dynasty, c. 1700-1720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and gold

Porzellansammlung, PO 6551

표주박 모양 병

Huluping Shaped Vase

경덕진, 청, 1700~1720년경

자기,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3355

Jingdezhen, Qing dynasty, c. 1700-1720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and gold

Porzellansammlung, PO 3355

중국 적색자기의 방 Room of Red Chinese Porcelain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는 일본 이마리 자기와 중국 녹색자기 다음으로 ‘적색 자기’를 전시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도자기 컬렉션에는 적색 계열의 자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천장이 낮은 방을 적색자기의 방으로 배정하고, 가장자리에만 자기를 빙 둘러 진열하고자 했습니다. 도자기의 윤곽과 크기까지 상세하게 묘사한 입면도를 보면 어떠한 형태의 도자기를 진열하려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입구 양쪽에는 〈밸러스터 형태의 병〉 두 점, 벽면 아래쪽에는 〈수조〉와 한 쌍의 〈병〉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들은 모두 대칭과 반복의 원리를 고려하여 배치되었습니다. 산화철로 만든 붉은색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한 이 자기들은 중국에서 유럽 수출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자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자기의 독특한 색과 장식은 유럽인들에게 매우 이국적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네덜란드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 적색자기의 방 입면도 Elevation for the Room of Red Chinese Porcelain

마테우스 다니엘 뢰펠만

드레스덴, 1729년

종이에 먹과 수채

드레스덴 기록 보관소, 10006 Oberhofmarschallamt, P, Cap. II, No. 15, Bl. 26c/3

Matthäus Daniel Pöppelmann

Dresden, 1729

Paper, ink, water color

Saxon State Archives Dresden, 10006 Oberhofmarschallamt, P, Cap. II, Nr. 15, Bl. 26c/3

밸러스터 형태의 병 Baluster Shaped Vase

경덕진, 청, 1700~1720년경

자기, 적색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6261b

Jingdezhen, Qing dynasty, c. 1700-1720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iron-red and gold

Porzellansammlung, PO 6261b

병

Vase

경덕진, 청, 1700~1720년경
자기, 적색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3056

Jingdezhen, Qing dynasty, c. 1700-1720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iron-red and gold
Porzellansammlung, PO 3056

수조

Cistern

경덕진, 청, 1700~1720년경
자기, 적색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969

Jingdezhen, Qing dynasty, c. 1700-1720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and gold
Porzellansammlung, PO 969

병

Vase

경덕진, 청, 1700~1720년경
자기, 적색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3054

Jingdezhen, Qing dynasty, c. 1700-1720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iron-red and gold
Porzellansammlung, PO 3054

밸러스터 형태의 병

Baluster Shaped Vase

경덕진, 청, 1700~1720년경
자기, 적색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6261a

Jingdezhen, Qing dynasty, c. 1700-1720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iron-red and gold
Porzellansammlung, PO 6261a

중국 백색자기의 방 Room of White Chinese Porcelain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는 일본 궁전 2층에 일본의 이마리 자기, 중국의 경덕진 자기 등과 더불어 일명 ‘백색자기’를 전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백색의 자기들은 중국 덕화요(德化窯)에서 제작된 백자를 의미했습니다. 덕화요의 백자는 17세기부터 유럽에 수출되기 시작하였으며, 빛깔이 아름답고 정교하여 유럽인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덕화요 자기를 ‘중국백(Blanc de Chine)’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작은 조각상 형태였으며, 비단으로 장식된 아치형 벽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놓인 받침대 위에 진열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이센 도자기 공장은 설립 초부터 덕화요의 자기를 모방했습니다. 그 결과, 거푸집에 넣어 그대로 본 떠 만들었기 때문에 원본보다 크기가 작지만 분위기와 모양이 매우 흡사한 마이센 백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백색자기의 방 입면도 Elevation for the Room of White Chinese Porcelain

마테우스 다니엘 뢰펠만

드레스덴, 1729년

종이에 먹, 수채

드레스덴 기록 보관소, 10006 Oberhofmarschallamt, P, Cap. II, No. 15, Bl. 26e/1

Matthäus Daniel Pöppelmann

Dresden, 1729

Paper, ink, water color

Saxon State Archives Dresden, 10006 Oberhofmarschallamt, P, Cap. II, Nr. 15, Bl. 26e/1

동물을 타고 있는 인물상 Figures Riding Animals

사자를 타고 있는 인물 Figure Riding a Lion

덕화요, 청, 1700년경

자기

도자기박물관, PO 3846

Dehua, Qing dynasty, c. 1700

Porcelain

Porzellansammlung, PO 3846

말을 타고 있는 인물
Figure Riding an Horse

덕화요, 청, 1700년경
자기
도자기박물관, PO 3257

Dehua, Qing dynasty, c. 1700
Porcelain
Porzellansammlung, PO 3257

코끼리를 타고 있는 인물
Figure Riding an Elephant

덕화요, 청, 1700년경
자기
도자기박물관, PO 3255

Dehua, Qing dynasty, c. 1700
Porcelain
Porzellansammlung, PO 3255

중국 관음상과 마이센 복제본
Chinese Figures of Guanyin and Meissen Copy

관음 좌상
Seated Guanyin

덕화요, 청, 17세기 후반
자기
도자기박물관, PO 8612

Dehua, Qing dynasty, late 17th century
Porcelain
Porzellansammlung, PO 8612

관음 입상
Standing Guanyin

덕화요, 청, 1675~1720년경
자기
도자기박물관, PO 8638

Dehua, Qing dynasty, c. 1675-1720
Porcelain
Porzellansammlung, PO 8638

관음 입상

Standing Guanyin

마이센, 1713~1720년경

자기

도자기박물관, PE 2190

Meissen, c. 1713-1720

Porcelain

Porzellansammlung, PE 2190

중국 포대상과 마이센 복제본

Chinese Figure of Budai and Meissen Copies

포대상

Figure of Budai

덕화요, 청, 1675~1720년경

자기

도자기박물관, PO 8567

Dehua, Qing dynasty, c. 1675-1720

Porcelain

Porzellansammlung, PO 8567

포대상

Figure of Budai

마이센, 1715~1725년경

자기

도자기박물관, PE 2183

Meissen, c. 1715-1725

Porcelain

Porzellansammlung, PE 2183

포대상

Figure of Budai

마이센, 1715~1725년경

자기

도자기박물관, PE 2181

Meissen, c. 1715-1725

Porcelain

Porzellansammlung, PE 2181

포대상

Figure of Budai

마이센, 1715~1725년경

자기

도자기박물관, PE 3778

Meissen, c. 1715-1725

Porcelain

Porzellansammlung, PE 3778

중국 청화백자의 방

Room of Blue-and-white Chinese Porcelain

청화백자는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수입한 중국 도자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엘베강이 보이는 일본 궁전의 긴 회랑을 청화백자의 방으로 구상했습니다. 입면도를 보면,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근위 용기병(龍騎兵)과 바꿀 만큼 귀중하게 여긴 대형 청화백자를 회랑 창가 사이의 벽기둥 앞에 배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청화백자 장식 자기세트〉 또한 대칭성을 중시한 아우구스투스의 계획에 따라 놓여 있습니다.

중국 청화백자의 방 입면도

Elevation for the Room of Blue-and-white Chinese Porcelain

마테우스 다니엘 뢰펠만

드레스덴, 1729년

종이에 먹과 수채

드레스덴 기록 보관소, 10006 Oberhofmarschallamt, P, Cap. II, No. 15, Bl. 26h/1

Matthäus Daniel Pöppelmann

Dresden, 1729

Paper, ink, water color

Saxon State Archives Dresden, 10006 Oberhofmarschallamt, P, Cap. II, No. 15, Bl. 26h/1

중국 청화백자 장식 자기 세트

Chinese Blue-and-white Garniture

비커 형태의 병

Beaker Vase

경덕진, 청, 1700~1720년경

자기, 청화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9053

Jingdezhen, Qing dynasty, c. 1700-1720

Porcelain, decorated in underglaze cobalt blue

Porzellansammlung, PO 9053

뚜껑이 있는 항아리

Covered Jar

경덕진, 청, 1700~1720년경

도자기, 청화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2009

Jingdezhen, Qing dynasty, c. 1700-1720

Porcelain, decorated in underglaze cobalt blue

Porzellansammlung, PO 2009

비커 형태의 병

Beaker Vase

경덕진, 청, 1700~1720년경

자기, 청화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9054

Jingdezhen, Qing dynasty, c. 1700-1720

Porcelain, decorated in underglaze cobalt blue

Porzellansammlung, PO 9054

중국 자기 병과 마이센 복제본

Chinese Porcelain Vase and Meissen Copy

병

Vase

경덕진, 청, 1680~1700년경

자기, 동화와 청화,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7987

Jingdezhen, Qing dynasty, c. 1680-1700

Porcelain, decorated with underglaze copper red, blue, and gold

Porzellansammlung, PO 7987

병

Vase

마이센, 1730년경

자기, 자개 광택이 나는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E 2763

Meissen, c. 1730

Porcelain, decorated with mother-of-pearl luster and gold

Porzellansammlung, PE 2763

중국 뱌러스터 형태의 병과 마이센 복제본
Chinese Baluster Shaped Vase and Meissen Copy

뱌러스터 형태의 병
Baluster Shaped Vase

경덕진, 청, 강희년간(1662~1722)
자기, 청화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8937

Jingdezhen, Qing dynasty, Kangxi period (1662-1722)
Porcelain, decorated in underglaze cobalt blue
Porzellansammlung, PO 8937

뱌러스터 형태의 병
Baluster Shaped Vase

마이센, 1725년경
자기, 청화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E 2197

Meissen, c. 1725
Porcelain, decorated in underglaze cobalt blue
Porzellansammlung, PE 2197

중국 양념병과 마이센 복제본

Chinese Cruet Bottle and Meissen Copy

양념병

Cruet Bottle

경덕진, 청, 강희년간(1662~1722)

자기, 청화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2339

Jingdezhen, Qing dynasty, Kangxi period (1662-1722)

Porcelain, decorated in underglaze cobalt blue

Porzellansammlung, PO 2339

양념병

Cruet Bottle

마이센, 1730년경

자기, 청화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E 5582

Meissen, c. 1730

Porcelain, decorated in underglaze cobalt blue

Porzellansammlung, PE 5582

중국 대접과 마이센 복제본 Chinese Bowl and Meissen Copy

대접 Bowl

경덕진, 청, 강희년간(1662~1722)
자기, 청화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1923

Jingdezhen, Qing dynasty, Kangxi period (1662-1722)
Porcelain, decorated in underglaze cobalt blue
Porzellansammlung, PO 1923

대접 Bowl

마이센, 1730년경
자기, 청화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E 2241

Meissen, c. 1730
Porcelain, decorated in underglaze cobalt blue
Porzellansammlung, PE 2241

비커 형태의 병 **Beaker Vase**

경덕진, 청, 1700~1720년경
자기,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O 6319

Jingdezhen, Qing dynasty, c. 1700-1720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and gold
Porzellansammlung, PO 6319

통병 **Rollwagen Vase**

마이센, 1730년경
자기,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E 5136

Meissen, c. 1730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and gold
Porzellansammlung, PE 5136

‘붉은 용’ 식기 세트 **“Red Dragon” Service**

접시 **Plate**

마이센, 1730년경
자기, 적색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E 1177

Meissen, c. 1730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iron-red and gold
Porzellansammlung, PE 1177

뚜껑이 있는 수프 그릇 (튜린) **Tureen**

마이센, 1739년경
자기, 적색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E 1157

Meissen, c. 1739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iron-red and gold
Porzellansammlung, PE 1157

버터 접시 또는 설탕 그릇 **Butter Dish or Sugar Bowl**

마이센, 1740-1750년경
자기, 적색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E 1381

Meissen, c. 1740-1750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iron-red and gold
Porzellansammlung, PE 1381

ナイ프 손잡이 **Knife Handles**

마이센, 1735~1740년경
자기, 적색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E 5406 a, b

Meissen, c. 1735-1740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iron-red and gold
Porzellansammlung, PE 5406 a, b

소금 그릇
Salt Cellar

마이센, 1763~1774년경
자기, 적색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E 1167 b

Meissen, c. 1763-1774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iron-red and gold
Porzellansammlung, PE 1167 b

소스 그릇
Sauce Boat

마이센, 1730~1735년경
자기, 적색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E 1162

Meissen, c. 1730-1735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iron-red and gold
Porzellansammlung, PE 1162

‘황색 사자’ 식기 세트
“Yellow Lion” Service

버터 접시 또는 설탕 그릇
Butter Dish or Sugar Bowl

마이센, 1740~1750년경
자기,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E 1271

Meissen, c. 1740-1750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and gold
Porzellansammlung, PE 1271

뚜껑이 있는 수프 그릇 (튜린)
Tureen

마이센, 1750~1760년경
자기,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E 1244 b

Meissen, c. 1750-1760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and gold
Porzellansammlung, PE 1244 b

접시
Bowl

마이센, 1730년경
자기, 상회안료와 금으로 장식
도자기박물관, PE 1223 f

Meissen, c. 1730
Porcelain, decorated with overglaze colors and gold
Porzellansammlung, PE 1223 f